

미술관 교육에 대한 초역사적 접근:
현재진행형

헤이르트-얀 다벨라르

A Transhistorical Approach to Museum
Education: An Ongoing Process

Geert-Jan Davelaar

프란스할스미술관에 대해

프란스할스미술관은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도시 하를럼의 중심에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 미술관은 하를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인 ‘프란스 할스(Frans Hals)’의 따서 설립한 미술관이다.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Van Rijn),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와 함께 할스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였던 17세기의 거장 중 한 명이다. 프란스할스미술관에는 매해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있다.

하를럼미술관은 하를럼 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폭넓은 16, 17세기 회화 컬렉션을 1862년부터 보존 해 왔으며, 1950년대에 들어선 현대미술 컬렉션을 데 할런 하를럼(De Hallen Haarlem)으로 옮겼다. 이 미술관은 최근 뉴미디어와 비디오 아트에 중점을 두고 주로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18년에는 안 데메이스터르(Ann Demeester)를 필두로 두 미술관이 프란스할스미술관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었다. 이 두 미술관은 할과 호프 지역 두 곳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를럼 풍의 17세기 회화와 동시대 (비디오)미술, 두 가지 컬렉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초역사적 미술관

두 가지의 상이한 컬렉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프란스할스미술관은 초역사적 관점에서 컬렉션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시기의 오브제와 유물, 미술사적, 문화적 맥락을 전시 디스플레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연대기, 맥락, 분류와 같은 전통적인 박물관학적 개념에 질문하고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내용은 『초역사적 미술관:

현장을 매핑하다(The Transhistorical Museum: Mapping the Field)』(Valiz, 2018)의 서문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벨기에 뤼번에 위치한 M 미술관(Museum Leuven)과의 협력으로 집필한 이 책은 관련한 주제와 실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관이 출간한 연구계획(research initiative)이며 현재 미술관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글도 포함하고 있다.

이 초역사적 연구는 다른 시대의 예술 작품들이 나란히 전시 됐을 때 어떤 시각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앞에서 언급한 두 미술관의 공식 결합이 있기 전, 안 데메이스터르가 디렉터로 임명됐던 2014년부터 여러 초역사적 실험이 미술관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작업의 주목적은 전통적인 회화가 동시대 미술작품 옆에 전시 됐을 때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형식의 전시에 방문한 관람객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때 전시된 작품들 사이의 관계와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다른 빛을 비추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우리 미술관 교육의 미션에 대한 명제를 정리하게 했다.

초역사적 미션

이런 초역사적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프란스할스미술관은 우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중점적인 가치를 만들어오고 있다. 먼저 미술관은 고유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문화를 위한 공간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술관이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쓰인 역사적 서사를 전개하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상이한 접근이다. 두 번째로 작가가 현실을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묘사한다는 개념과 상응한다.

미술관은 다른 맥락, 다른 시대에 속한 타자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곳이다. 미술관은 이러한 개념과 서사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본 이런 이미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미술관은 다양한 관점과 서사가 살아있는, ‘생각을 위한 공간’이자 ‘의미의 생산장’이 된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고민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미술관은 독립된 섬이 아닌 그 미술관이 속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또한 커뮤니티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연결하는 거점이 된다.

콘텐츠에 주는 영향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일할 때 미술관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미술관의 전시와 프로그램에 초역사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요하는데, 컬렉션 기반 연구, 미술관 텍스트, 프로그램 기획,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이것은 어떻게 명작 위주의 상설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기획 전시가 만들어지는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배움의 대상과 작동 방식이 쓰일 수 있는지, 어떻게 미술관이 공공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우리 미술관 컬렉션 전시 «하를럼의 영웅과 많은 거장들(Haarlem Heroes: Other Masters)»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각 공간에 전시된 예술작품들은 젠더, 이주와 같은 현재의 쟁점을 중심으로 혹은 ‘중요한 작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미술관의 컬렉션을 반드시 모두 전시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같은 방식으로, 가령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의 귀속(belonging)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17세기 많은

예술가는 타지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했으며, 네덜란드 하를럼 출신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로 알려진 프란스 할스도 벨기에 태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포함된다. 거의 400년된 유물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 설명이나 미술관 관람객을 위한 전통적인 중심들이 유연해진다. 작품은 변하지 않지만 작품에 관한 서사는 계속 변화한다.

초역사적 접근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준다. 도슨트 투어나 학생 단체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17세기의 예술과 사회에 대한 배움’이라는 주제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최근 우리 미술관은 ‘작품을 바라보고 배우기’라는 것을 첫 번째 전제로 한다. 1700년대의 한 사람이 평생 보았을 이미지의 양보다 하루 동안에 더 많은 이미지를 보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가치를 만들 것인지를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각적인 언어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우기에 미술관은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개발한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ies)이나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프로젝트 제로가 개발한 시각적 사고 방식(Visual Thinking Routines)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들은 회화를 분석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비평적 사고를 훈련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를 제공한다.

프란스할스미술관의 공공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식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역동성을 볼 수 있다. 시장, 싱어송라이터, 9살짜리 세쌍둥이 등 다양한 하를럼 시민들이 자신들이 빠져들었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공유하는 짧은 영상 시리즈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극장, 무용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회화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만든 팝업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연간 프로그램인 «미술관의 밤(Museum Night)»에서는 관람객은 ‘황금기’에서 나타난 부유층 시민들(소맷자락이 길고, 옷깃이 화려하며 레이스를 입고 있는)의 초상화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초대됐다. 이때 휴지나 비닐봉지 같은 ‘가치 없는’ 재료를 장신구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상화는 미술관 컬렉션의 위엄 있는 회화에 대한 동시대적 해석이다. 이러한 활동은 관람객들을 통해 컬렉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작업을 해석하도록 하는 한편, 동료 관람객들의 창작물을 통해 ‘오래된’ 예술 작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커뮤니티 미술관

미술관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미술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주요한 운영 전략이다. 우리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최소 약 60명의 선택된 관람객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미술관에서 있었던 각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이러한 연간 관람객 연구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대화는 미술관의 관람객 응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미술관 경험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접근에 대해 의견을 바로 수렴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작품을 보는 경험이 마음을 훈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전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미술관의 미션과 미술관 컬렉션에 연결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잘 운영되고 있다. 방명록에 어떤 80세인 관객이 우리 연구

컬렉션의 새로운 전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남겼다. “컬렉션을 정말 멋지게 전시했군요! 이전에도 미술관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 전시는 특별히 아름답고 활기차네요.”라고 말이다.

헤이르트-안 다벨라르
프란스할스미술관 교육·
공공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헤이르트-안 다벨라르는 암스테르담
예술대학교 헤인바르트 아카데미에서

박물관학을 전공했다. 현대미술과 시각문화,
역사에 중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여러
미술관에서 교육과 공공프로그램 부서에서
일을 했다. 헤이르트-안 다벨라르의
주요관심사는 시각 문화와 사회적 포용에
관한 영역이다.

About the Frans Hals Museum

The Frans Hals Museum is one museum in two locations in the historic city centre of Haarlem, the Netherlands. The museum is named after Haarlem’s most famous artist: Frans Hals. Together with Rembrandt and Vermeer, Hals is one of the grand Old Masters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golden age’ of Dutch painting. The museum welcomes over 130,000 visitors each year from all over the world.

Since 1862 the museum cares for an extensive collection of sixteenth- and seventeenth-century paintings, owned by the city. In the 1950s its collection of modern art was moved to a second location in the city under a different brand name (De Hallen Haarlem), which in recent years developed into a museum dedicated to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ith a special focus on new media and video art. In 2018, under the leadership of director Ann Demeester, these two museum locations were merged into one museum—Frans Hals Museum—with two locations, Hal and Hof, with a focus on two core collections: seventeenth-century paintings of the Haarlem school and contemporary (video) art.

The Transhistorical Museum

Having these two distinct collections, this ‘new’ museum approaches its collection from a transhistorical perspective: “objects and artefacts from various periods and art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are combined in the display, in an effort to question and expand traditional museological notions such as chronology, context, and category,” as the introduction to the book *The Transhistorical Museum: Mapping the Field* (Valiz, 2018) states. This book, written in cooperation with Museum M (Leuven, Belgium), was a research initiative by the museum to collect

different views on and efforts in this practice, including contributions by museum staff. This transhistorical practice is also a way to create space to explore what kind of visual stories emerge when objects, such as works of art from different time periods, are put on display side by side. Before the official ‘marriage’ of the two museums, different transhistorical experiments had already been conducted in the museum since 2014, when Ann Demeester was appointed as director.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presentations were to explore what meaning(s) historic paintings gain when exhibited next to contemporary works of art. What does the viewer of these presentations see? How do the relationships to and interpretation of these works change? This resulted in our educational mission statement: “When viewed in a different light, you see more.”

A Transhistorical Mission

To implement this transhistorical mission, the Frans Hals Museum has formulated core values which provide a basic framework for its program. First of all, the museum is a space for a visual culture, which facilitates looking at unique works of art. This i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where the museum presents an often fixed historical story through works of art. Secondly, it works with the notion that artists not only visualize reality, but develop ideas to depict reality how they see it. A museum facilitates looking at these images that were created in someone else’s mind, in different contexts and times. The museum provides tools to discover these ideas and stories, and facilitates moments to see these images through other people’s eyes. This way, the museum is a ‘space for ideas,’ where different views and stories live, and a ‘machine of

meaning’ in which we can examine and discuss works of ar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at way, the museum is not an island, but a hub connecting different voices in its social context and as part of a community.

Impacts on Content

Working with these assumptions, traditional methods of museum work are challenged and up for review. Having a transhistorical approach to its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has consequences on different levels: collection-based research, museum texts, programming,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It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both how the permanent collection of masterpieces is presented, how temporary exhibitions come to life, what learning objectives and work forms are used in educational programs, and how the museum approaches public programming.

For example, in the new presentation of our permanent collection *Haarlem Heroes: Other Masters*, the artworks in every room revolve around current topics such as gender and immigration, or are based on questions like ‘who decides who is an important artist?’ or ‘should a museum shows its complete collection?’ This way, paintings by famous ‘Dutch’ artists, for example, ask questions about belonging: in the seventeenth century many artists were born elsewhere and migrated with their families to the Netherlands. This is also the case with Frans Hals, who was born in Belgium, and today is viewed as the most famous artist from Haarlem. Artefacts from almost 400 years ago still ask us questions. This way, the museum’s object labels, the traditional anchor for museum visitors, become flexible. The objects stay the same, but the stories presented in text are renewed.

The transhistorical approach also affects educational programs. Instead of having ‘learning about seventeenth-century art and society’ as a basis for guided tours and workshops for schools, nowadays the museum includes ‘learning from looking at art’ as its first priority. In a world where we see more images in a single day than someone in the 1700s saw in their lifetime, we need to practice how to look at, interpret and value images. An art museum provides the perfect environment to train this ‘visual literacy.’ Using techniques like ‘Visual Thinking Strategies,’ develop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or ‘Visible Thinking Routines’ by Harvard Project Zero, they provide fitting tools to analyze paintings, stimulate curiosity and train critical thinking.

The same dynamics described above can be seen in the museum’s public programs and online content creation. In a series of short videos, different “Haarlemmers”—the Mayor, a singer-songwriter, nine-year-old triplets—talk about a work of art they feel drawn to and share why. Recently, visitors were surprised by pop-up performances by students of the theater and dance academy who interpreted a painting which stood out for them. Likewise, during a yearly ‘museum night,’ visitors were invited to recreate portraits of the wealthy from the ‘golden age’ (wearing cuffs, collars and lace) by using ‘worthless’ materials like tissues and plastic bags as accessories. The resulting self-portraits were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stately paintings from the museum collection. These activities are set up on the one hand to get visitors to work with the collection and to interpret works of art by themselves, and on the other hand to allow other visitors to look at ‘old’ art in a new way through the creations of fellow visitors.

A Community Museum

Because a museum is a public place, engaging our community of visitors is vital to our strategy. As such, we are developing ways to receive continuous feedback from the people who visit our museum. An important activity is a yearly audience study in which we sit down with a minimum of 60 randomly selected visitors with a cup of coffee to talk about their museum experience. These conversa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a firsthand account of visitor responses and because we get feedback on our approach of designing a meaningful museum experience. We believe that looking at art is a workout for the mind. Through our exhibitions, programs, and activities, we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works best to connect as many engaged people as possible to our mission and museum collection. And it works—in our guestbook an 80-year-old visitor wrote the following about the new presentation of our permanent collection: “What a stunning presentation of your collection! I’ve visited the museum many times before, but this exhibition was particularly beautiful and brisk.”

Geert-Jan Davelaar
Coordinator of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Frans Hals Museum

Geert-Jan Davelaar is the coordinator of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at the Frans Hals Museum Haarlem, the Netherlands. He studied museology

at the Amsterdam School of Arts, Reinwardt Academy. He worked in both educational and presentation departments at several Dutch museums with a focus o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visual culture and history. His main interests lie within the field of social inclusion and visual culture.